

보도일시 (인터넷) 2025. 5. 6.(화) 11:00, 배포 2025. 5. 2.(금) 오후
 (지면) 2025. 5. 7.(수) 조간

수산전통식품의 명맥을 잇는다!

- 6.9(월)~20(금)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6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제도는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명인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999년 제1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14명의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되어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자격요건은 ①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대한민국수산물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신청자는 거주하는 시·도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시·도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된 사람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적합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수산물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해외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업정책과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윤상훈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이영훈 (044-200-5488)
담당 부서	국립수산물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	책임자	과 장	하광수 (051-721-2610)
		담당자	연구사	오재영 (044-721-265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수산물명인 지정 현황 : 12개품목, 14명 지정(유지 13명, 해제1명)>

지정번호	성명	지정품목	지정일	소재지
제1호	김광자	송 어 어 란	'99. 11. 27. (해제 : 2023년)	전남 영암군
제2호	이영자	제 주 옥 돔	'12. 05. 21.	제주시
제3호	정락현	죽 어	'15. 09. 23.	전북 부안군
제4호	김윤세	죽 어	'16. 12. 01.	경남 함양군
제5호	김정배	새 우 젓	'16. 12. 01.	충남 아산시
제6호	유명근	어 리 굴 젓	'16. 12. 01.	충남 서산시
제7호	김혜숙	참 게 장	'18. 12. 03.	전남 곡성군
제8호	이금선	가 자 미 식 해	'20. 12. 03.	강원 속초시
제9호	김천일	마 른 김	'21. 12. 29.	전남 완도군
제10호	김헌목	멸 치 액 젓	'21. 12. 29.	경북 경주시
제11호	장종수	명 란 젓	'22. 12. 14.	부산 서구
제12호	문은희	창 난 젓	'23. 12. 21	강원 속초시
제13호	신세경	새 우 젓	'24. 12. 12.	충남 홍성군
제14호	윤효미	김 부 각	'24. 12. 12.	경남 거창군